

## 6. 택시업체 정비공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증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자동차 정비공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이OO는 17세이던 1988년 2월 택시회사 정비업무를 시작하여 동종업계에서 2006년 1월까지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강동S병원, 강북S병원 등을 방문하였고, 동 병원에서 흉막에 발생한 악성중피증으로 진단 받았다.

**2.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7세이던 1988년 2월 택시회사 정비업무를 시작하여 동종업계에서 2006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 브레이크라이닝교체, 미션, 엔진 등을 검사 수리하는 정비업무를 하였고 이○○이 일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80-100대 정도의 택시를 보유하였던 회사였다. 보통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주기가 평균 1달-2달 정도라고 봤을때, 하루 평균 2-4대 정도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가 있었다. 교체시 심한 먼지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도에 드럼방식에서 패드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먼지발생이 작았으나, 그 이전에는 먼지 발생이 심했다고 한다. 옥외 작업장이라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없었다. 작업자들의 진술과 브레이크 라이닝을 생산한 업체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이OO의 경우 2002년 이후에는 작업중 석면노출이 없었다고 판단되나, 1988년(17세)부터 2002년(31세)까지 15년 가량 작업 중 브레이크라이닝 교체 작업시 석면제품을 사용하였고, 이때 석면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이OO는 2005년 12월 경 발생한 우측의 흉막통을 주소로 K대학 병원에 방문하였고, 동 병원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결과 우측 흉막에 악성중피종의심되어, 2006년 1월 11일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흉막생검 조직검사서에서 악성중피증으로 확진 받았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이OO는

- ① 흉막에 발생한 악성 중피증으로 확진되었으며,
- ② 17세때부터 택시 정비업무를 하며 15년 정도 석면 노출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 ③ 악성중피증은 석면에 의해 70-95% 정도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 ④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18년 정도의 잠복기가 질병 발생연령을 감안할 때 짧다고 말할 수 없어

작업 내용과 환경,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고려한 결과, 근로자 이OO의 흉막에 발생한 악성 중피증은 과거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